

삼성페이-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연동

애플페이 국내 출시 21일 확정 현대카드 결제...대결구도 관심 삼성전자, 네이버 이어 카카오와도 연동...가맹점·포인트로 승부

애플페이가 오는 21일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당장 원활한 서비스 이용에는 다소 걸림돌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애플페이를 고대해온 아이폰 이용자가 많았다는 점에서 간편결제 시장의 각변동이 예상된다.

애플페이 한국 상륙에 맞서 삼성페이가 카카오페이와 간편결제 연동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간편결제 시장 대결 구도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과 현대카드는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 출시일을 오는 21일로 확정했다. 지난 2월 초 금융위원회가 애플페이의 법 저촉 여부를 심사한 뒤 서비스 도입을 최종 허용하고, 애플이 한국 출시를 공식 발표한 지 한달 반 만이다.

다만 출시 직후 현대카드 이용자만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카드가 금융위

심사과정에서 애플페이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하면서 다른 카드사들도 애플페이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아직 다른 카드사들이 아직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아직 보급률이 5% 수준에 그치는 NFC(근거리무선통신) 단말기 보급, 카드사 수수료 부담 해소를 통한 제휴 카드사 확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애플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 국내 상륙이 가까워지면 삼성페이와 카카오페이가 결제 서비스 연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IT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카카오페이와 간편결제 상호 서비스 연동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앱에서 삼성페이를 이용해 온라인 결제와 마그네틱보안전송(MST) 방식의 오프라인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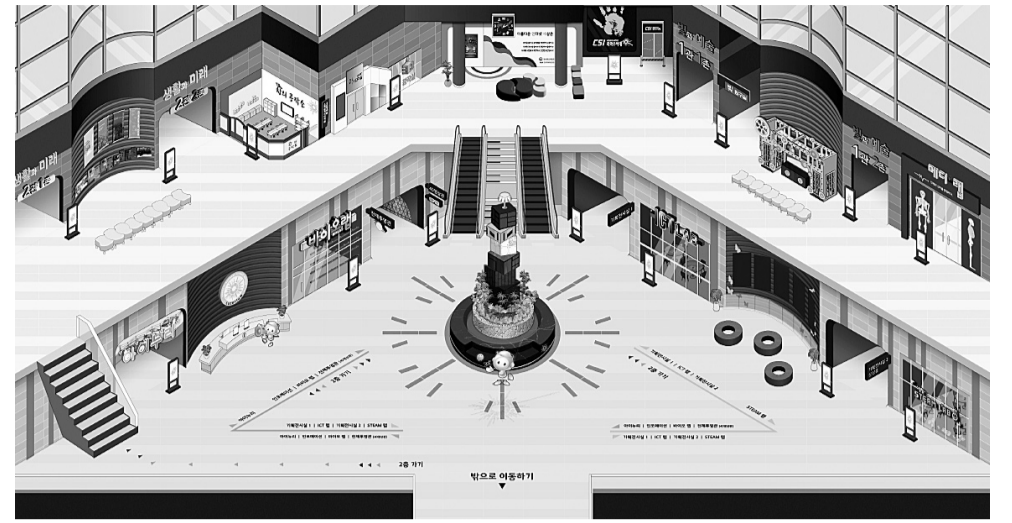
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페이낸셜과 '모바일 결제 경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 온라인 가맹점 55만 곳에서 삼성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달 하순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유력하게 전망되는 애플페이에 대응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국내 1, 2위 간편결제 사업자인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와의 협력으로 삼성페이의 결제 범용성을 높여 '삼성페이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도 삼성페이와 연동하면 오프라인 결제 시 QR코드나 바코드를 사용하는 한계를 넘어 결제 지원 가맹점 확장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결제 서비스 연동 논의를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립광주과학관 메타버스 내부 전경

국립광주과학관, 메타버스 선보여

쌍방향 실시간 소통·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직무대리 전태호)은 개관 10주년과 인공지능 개관을 맞아 15일부터 과학관 메타버스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립광주과학관 메타버스는 쌍방향 실시간 소통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과학관의 주요시설과 건물 등의 공간을 실제와 유사하게 구축한 온라인 가상공간이다.

온라인 공간에서 국립광주과학관을 생생히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는 최근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에 맞춰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됐다.

4월부터 메타버스 활용 교육 'Let's start! AI 엔지니어'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개설될 예정이다.

메타버스에 개설된 인공지능 테마형 과학 교실 '인공지능랩' 외에도 앞으로 천문·캠프프

로그를 운영하는 '별빛누리관'과 '천문대', CSI과학수사대, 우주배움마루 등 다양한 과학 교실을 순차적으로 개설해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태호 국립광주과학관 관장 직무대리는 "향후 과학관에서 교육 및 각종 행사 진행 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용 메타버스 공간을 국민들께 선보인다"며 "국립광주과학관은 메타버스를 시작으로 시대의 흐름과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고려한 과학교육의 선도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국립광주과학관 메타버스는 누구나 입장하여 관람 및 교육 참여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세계 첫 '3D 프린팅 로켓' 또 발사 직전 취소

2단계 추진체 압력 문제...조만간 재시도 예정

세계 최초로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로켓 '테란 1'(사진)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막판에 취소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의 발사대에 설치된 테란 1 로켓은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간의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으나, 2단계 추진체의 압력 문제로 인해 발사를 중단해야 했다고 제작사인 미 스타트업 '펠라티비티 스페이스'가 밝혔다.

애초 펠라티비티 스페이스는 지난 8일 테란 1 로켓을 쏘아 올릴 예정이었으나, 당시에도 추진체 온도 문제로 막판 불발된 바 있다.

펠라티비티 스페이스는 조만간 다시 일정을 잡아 발사를 재시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로켓은 높이 33.5m, 지름 2.2m 크기이며 엔진을 포함한 질량의 85%가 금속 합금으로 3D 프린팅됐다. 발사 후에는 지구 저궤도(LEO)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로, 성공하면 대부분이 3D 프린팅 기술로 제조되고 메테인(메탄) 연료를 사용하는 첫 민간 로켓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2016년 설립된 펠라티비티 스페이스는 본체의 95%를 3D 프린팅한 로켓을 제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부품 수를 기존 로켓의 100분의 1로 줄이고 60일 만에 로켓을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펠라티비티 스페이스는 내년에는 '테란 1'보다 큰 중형 재사용 로켓 '테란 R'을 케이프 커내버럴에서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NASA "2046년 소행성 지구 충돌 가능성"

올해 새로 발견 '2023DW'로 명명...토리노 충돌위험 등급 '1'

20여년 뒤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올림픽 경기 수영장 크기의 소행성이 새로 확인돼 추적이 이뤄지고 있다.

14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외신 등에 따르면 '2023 DW'로 명명된 이 소행성은 지름이 약 50m로, 지난 달 2일 지구에서 약 1800만km 떨어진 곳에서 초속 25km로 태양 궤도를 도는 것이 처음 발견됐다. 이 소행성은 271일 주기로 공전하는데, 오는 2046년 벨란타인 데이인 2월 14일 지구에 약 180만km까지 다가설 것으로 예측됐다.

유럽우주국(ESA) 지구근접천체협력센터는 8일 현재 지구충돌 가능성을 625분의 1로 발표했으며, NASA 제트추진연구소(JPL) 감시시스템은 이보다 더 낮은 560분의 1로 제시했다. 이는 지구 주변을 지나는 소행성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지만 전체적인 충돌 위험은 여전히 낮은 것이라고 NASA는 밝혔다.

2023 DW는 총 10단계로 지구 충돌 위험을 평가하는 '토리노 충돌위험 등급'에서 1, 다른 소행성은 0으로 분류돼 있다. 0은 충돌 위험이 아예 없거나 사

실상 영인 상태, 1은 충돌 가능성이 극도로 희박해 관심을 기울이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나타낸다. 하지만 2023 DW의 지구충돌 확률은 관측이 더 이뤄지면 극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한다.

'NASA 소행성 감시'(Asteroid Watch)는 트윗을 통해 "새로운 소행성이 처음 발견되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미래 궤도를 적절히 예측하는데 여러 주가 걸린다"면서 "궤도 분석은 계속될 것이고 더 많은 자료가 확보되는대로 예측치를 갱신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KT, 메타버스 플랫폼 '지니버스' 오픈베타 출시



KT는 B2C 메타버스 플랫폼 '지니버스'의 오픈베타(시범 서비스) 버전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지니버스에는 도면 기반의 'AI 홈트윈' 기술이 적용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입력하면 메타버스 공간에 현실의 집이 그대로 구현된다. 또 1천여 개의 아이템을 통해 아바타를 개성있게 꾸

미는 것도 가능하다.

KT는 앞으로 지니버스에 생성 AI 플랫폼 기술을 적용해 AI 모션 댄스, AI 아바타 메시지 등의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니버스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으면 이용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